

세계한인비즈니스 D-100 성공 개최 준비 속도

전북자치도, 전주시·전북대 등과 합동 점검회의 기업전시관·참여기업 발굴 등 진행상황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2차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민간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특별자치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점검회의는 대회 개최가 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전시관 조성 등 구체화된 개최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 관계기관 협력과제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회의에 참가한 전원이 제22차 대회 일반 참가 신청서를 작성, 대회 참여자 모집을 위한 행사도 이뤄졌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대, 전주시는 세부 프로그램 구성, 행사장 정비, 환경관리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회 기업전시관은 철구조물을 활용한 폐쇄형 실내공간으로 총 8,200㎡의 규모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조성된다.

총 300여개 부스(3X3㎡)를 운영할 예정이며, 공평한 구조물을 제공하는 기본 부스와 바다면적만 제공하고 기업에서 직접 조성하는 독립 부스, 두 가

지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바이어와의 연계를 통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 재외동포청과 협력이 추진되며, 우수기업 발굴로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 이번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한상넷 사이트를 통해 등록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도 자체 프로그램인 지니포럼을 비롯해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발효식품엑스포, JB-FAIR(우수기업 우수출발박람회)을 이번 대회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다.

대회 기간 동안 행사장인 전북대뿐만 아니라 전주시 일원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체험 프로그램과 도내를 탐방할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느낄 수 있는 퓨전 국악 공연, 통합 퍼레이드 등 각종 체험 상설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새만금 및 도내 일원 투어프로그램도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

이번 제22차 대회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기존의 비즈니스대회와 달리 젊은 대학생들이 창의와 열기를 접목시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160여 명의 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총장을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특별자치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가졌다.

해 각종 공식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게 되며, 대회 전 반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과 의료지원 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응급 상황과 방역, 위생·환경, 교통·수송 등 빈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으로 각종 상황에 대한 예방조치와 실시간 대응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의 경제역량을 전 세계로 확장 시킬 중요한 기회"라며, "세계 각국에서 한인 CEO들이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비즈니스 성과뿐만 아니라 소중한 손님들이 내 집 같은 편안함과 고향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전주로 초대하는 만큼, 전주의 매력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이번 대

회를 통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학생들에게도 전 세계의 한인 경제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대회가 전북대에서 열리는 만큼 도와 전주시 등과 적극 협력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3,0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한인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 세계 한인족 동포경제인을 하나로 묶는 대표적인 행사로 치러진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매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250명 지원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가구의 경제적 지원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50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청년 본인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초과로 선정되지 못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3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91~289만 원)면서 재산 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인원 완료 시 종료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익산시 콜센터(1577-0072) 또는 주택과(063-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지원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15일 '혁신도시 악취저감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내 중기·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전북자치도, 한은 전북본부 등과 희망전북 함께도와약 특례보증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동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채희권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농협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도내 7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전북 함께도와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희망전북 함께도와약 특례보증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강화,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부문에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추천기업, 전입기업, 수출분야 등 △전략부문에 전북자치도 지정 지역주력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탄소산업 등 △특별부문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등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한다.

보증한도는 중소기업은 8억원 이내, 소기업은 4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2억 원 이내, 보증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채희권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농협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도내 7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전북 함께도와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신보, 1000억원 보증 지원·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최대 8억원·5년 보증, 대출리 중 1.5% 이하보전

환으로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서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

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희망전북 함께도와약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230-3333)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jbcredit.or.kr/>)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일자,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 미래형 창의 인재 키우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챌린지 대회' 개최

도내 초등부 10개팀·중고등부 30개팀 등 147명 참가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제2회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챌린지(Challenge) 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전북 소프트웨어 미래체육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코딩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기간은 7월 16일까지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원시, 전북

SW 미래체육 센터가 함께한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등부 10개 팀, 중고등부 30개 팀 등 총 147명이 참가하며 기후문제와 고령화, 디지털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소프트웨어와 융합해 해결하고 창조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대결을 펼치게 된다.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는 초·중·고별로 도시사상,

교육감상, 남원시장상, 전북테크노파크원장상,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상 등이 주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 대회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데미샘자연휴양림에서 '신축 숙박시설 8개동'을 개장한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살아 숨 쉬는 섬진강의 발원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은 2021년~2023년(3년)에 걸쳐 숙박시설 8개동과 제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오는 8월 1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데미샘자연휴양림, 신축 숙박시설 8개동 내달 1일 개장

데미샘자연휴양림은 230ha의 넓은 부지에 숲속의 집(18동), 한옥형 숙박시설(2동), 휴양관(1동 11객실), 숲 문화마당, 명상의 숲, 물놀이장, 북카페, 산책로, 어울림숲, 전망대 등 다양한 객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산림문화·

휴양의 공간이다.

이번 신축 숙박시설 8개동은 내동산 1~2호(8인실, 단층), 선각산 1~2호(8인실, 복층), 덕대산 1~4호(4인실, 외부복층)로 구성되어 있다. 여름 성수기 기간에 개장됨에 따라

예약 과열을 방지하고 공평한 휴양림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월 1일~24일 기간에 '예약 추첨제'를 시행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숲나들e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약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이만호 기자

'악취 없는 미래로 한 걸음 더'

전북자치도, '혁신도시 악취저감 TF 제2차 회의' 개최 혁신도시 악취저감 분야별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전북자치도가 15일 '혁신도시 악취저감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조사 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매입 축사, 매입에서 제외된 계사, 가축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점검을 강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제1차 회의에서 TF팀 단장인 행정부지사의 김제 용지 악취배출원에 대해 분야별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주문에 따른 결과이다. 추후 김제시에서는 '용지 악취배출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정밀조사

를 통하여 전략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도와 김제시가 합동으로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 비료, 축산 등 관련 분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야간 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김제시의 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익산 왕궁 시제를 참고해 지역 주민과 갈등 없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호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간소화

"수해복구에 집중"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15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일정 중 업무보고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수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원활동에 전념하고 의원들도 적극 동참해 조속한 복구작업 완료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당초 16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23

일예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간소화시켰다.

또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 의원) 등 총 8건의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고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익산시의회는 수해로 인해 곤경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의견 청취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호응하는 익산시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의회, 제3기 예결특위 구성... 위원장에 박철원 의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제9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박철원 의원, 부위원장 이종선 의원, 위원으로